청정한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2016 고창갯벌축제'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창군 심원면 만돌 하전갯벌체험학습장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고창갯벌축제로 오세요

7일까지 3일간… 풍천장어잡기 · 갯벌가요제 등 행사 다채

청정한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2016 고창갯벌축제'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창군 심원면 만돌 하전갯벌체험학습장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축제 기간 동안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 세계적으로 그 보전가치를 인정받은 고창갯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축제의 첫 날인 5일에는 갯벌가왕 관광객 즉석 노래방, 고창생활예술 동호인 공연, 바지락을 구해줘! 등 어울마당과 개막축하 콘서트로 원음방송 '조은형의 가요세상' 특별 공개방송이 진행되며 초대가수로 송대관, 김연자, 김혜연 등 인기가수가 총 출동한다.

둘째 날인 6일에는 미끈미끈 풍천장어잡기, 얼음깨기, 물총싸움 등 어울마당과 평양예술단 특별공연, 고창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깜짝경매와 전남북 대학생 그룹사운드 경연대회가 열리며 인기가수 '장미여관'의 축하공연이 준비됐다.

7일에는 흥이 넘치는 품바공연과 알래스카얼음 위 오래버티기 등 어울마당과 갯벌가요제가 개최되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축제기간 동안 갯벌케리커쳐와 소금공예, 조개껍질공예와 같은 공예체험, 머드와 함께 즐기는 스포츠탕 에어바운스와 만돌 머드체험, 청정 염전체험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또 바지락무료시식행사와 각종 바지락요리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 조개채기 체험, 갯벌버스체험을 비롯해 깜짝이벤트가 준비되어 오감만족 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고창갯벌축제는 고창갯벌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사)고창한수연,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만월어촌계, 하전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가 후원해 마련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역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팔을 걷어 부쳤다.

황숙주 순창군수 기업현장탐방 나서

대상 · 사조 등… 농공단지 입주 기업 10곳 방문… 기업과 소통행보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역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팔을 걷어 부쳤다.

황군수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주)대상과 사조 등 관내 5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10곳을 방문하는 기업과의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기업현장탐방은 황군수가 지역의 대표적 기업들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황군수는 지역기업들과 순창군이 힘을 모아 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인재 고용 등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전격 결정했다.

첫날 일정은 쌍암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앤앤비 방문을 시작으로 가남농공단지에 입주한 치솔 생산업체인 뉴라이트와 (주)대상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풍산농공단지에 입주한 한국씨앤티 방적공장, 장류업체인 시아스, 타일 생산업체인 한보요업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날 방문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은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개발과 미래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칫솔 생산업체인 뉴라이트사는 "국내 최초로 치약바른 칫솔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면서 "시장의 반응이 좋아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지역사람 고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류업체인 시아스 대표도 "고추, 콩 등 장류원료를 100%로 국내산으로 사용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겠다"며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좋은물 생산업체인 앤앤비도 군의 만성질환 시책에 발 맞춰 겨우살이를 이용한 기능성 물 생산에 나서는 등 기업과 지역이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 논의 됐다.

2일 차인 4일 황군수는 인계농공단지를 방문해 수재맥주 회사인 장앤크래프트, 진미순창식품, 에스아이지, 사조산업 등을 방문하는 등 행보를 이어 갔다.

장앤크래프트 관계자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물이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어렵다"고 토로했고 황군수는 관정을 지원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하는 등 이날 방문에서도 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 등이 많이 논의됐다.

황군수는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성공해서 지역사람들을 고용하고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 며 "이번에 기업현장에서 접수한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데 군의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기업의 가려운 곳을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등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군수는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근로자 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기업과 밀착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당뇨병환자 무료 안과검진

500여명 대상 12월까지 진행

순창군이 당뇨병환자에 대한 무료 안과검진을 추진해 군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군은 관내 당뇨병환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과검진과 소변검사를 12월까지 진행하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성인실명 원인 1위가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증인 걸 감안해 안과 검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군은 관내 안과전문의원인 서울안과의원과 검진에 대한 협약을 진행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함에 따라 당뇨병환자들은 무료로 안과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안과검진을 원하는 당뇨병환우들은 보건의료원이나 각 읍면 진료소 지소 등을 방문해 접수증을 받아 서울안과를 방문하면 안저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8월 현재 88명이 안저정밀검사를 받았으며 이상자 6명에 대해서는 재검과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과검진 이외에도 군은 소변검사(미세단백뇨)검사도 함께 진행해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군이 만성질환 없는 순창 만들기를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자체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군은 검사결과 합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대상자로 등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당뇨병 환자들은 1년에 한번씩 합병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며 "관내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안과검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병증 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는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 전화 063- 650 - 5214, 524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드림스타트 글램핑 가족캠프

임실군 드림스타트는 '한여름밤의 글램핑 가족캠프'를 4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남 곡성에서 실시했다.

이번 가족캠프는 부모와 자녀 두 세대 간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아동 22세대 85명을 대상으로 풍성한 음악회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새로운 경험과 가족 사랑을 몸소 배우고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집을 떠나 먹거리, 잠자리 등을 직접 챙기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이웃과 나누는 상생문화를 체험했으며, 노래자랑 및 부모와 자녀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군 관계자는 "야외에서 즐기는 잠자리는 새로운 동심을 일깨우고 부모들은 추억과 회상에 잠겨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가족캠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드림스타트는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로 건강한 아동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고의 부자 만들기' 등 가족단위 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4회 이상 가족캠프 또는 가족단위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취약계층 가정의 위기도 측정조사를 통해 선정된 만 0세(임산부)~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644-3001)로 문의하면 위기도 측정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남원시는 오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 동안 '2016년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민원업무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특별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안내 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 등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추가로 20% 경감이 가능하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쓰레기배출요령 홍보

고창군(군수 박우정) 고창읍이 지역 내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쓰레기배출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실천했다고 4일 전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습관과 문화 등의 차이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고창읍사무소,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및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홍보반은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인 고창읍 원마트주변, 천변남로 등을 방문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외국인이 주로 활동하는 야간시간대를 활용하여 중국어 및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며 무단투기 근절 및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양지구대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여름철 안전사고 캠페인

남원시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민간단체회원 50여 명과 함께 4일 전통시장에서 실시하였다.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남원시지부,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내는 물론, 생수·모자 등을 상인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 날 행사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위해 요인을 신고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과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 시민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힘썼다.

남원시는 폭염 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버스 승강장 얼음 비치, 매일 2회 시가지 도로 살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임실군은 오수면 대정 둔기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오수천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장과 오수관로 사업이 병행 추진되는 대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8억원(국비 20억원, 군비 8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 착공, 201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100여 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 50톤/일, 하수관로 3.9㎞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대정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완공되면 그동안 미처리 방류되는 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섬진강 상류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사전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서, 강천산 계곡 방범활동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가 하계휴가철을 맞아 운영 중에 있는 강천산여름치안센터가 있는 강천산 계곡에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되면서 평일, 휴일 구분없이 피서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하루 평균 5천여명이 찾고 있으며 이번 주말에는 1일 입장객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경찰은 물샐 틈 없이 방범활동을 전개중으로, 특히 몰카촬영 등 성범죄 예방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1건의 사건도 발생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크철을 맞아 강천산을 관할하는 팔덕파출소 자율방범대원들까지 매일 5명씩 합동 근무를 하면서 여름파출소 성공적 운영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지방청 2부장은(치안감 정승용) 4일 오후 강천산여름치안센터를 직접 방문 현장무더위 속에서도 정성치안을 위해 땀흘리고 있는 경찰관(의경) 및 자율방범대원을 격려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서, 트럭 교통사고 예방활동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 부안파출소(소장 고명희)에서는 하계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덤프트럭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부안면 관내 석산 2개소가 있는 관계로 대형 차량의 교통량이 빈번하여 운전기사 대상으로 과속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졸음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층이 많은 농촌마을인 점을 감안,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운전자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운행 자제 및 적재함에 반드시 경광등 또는 야광반사지 부착,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 도로 횡단 또는 보행 시 차량 통행여부 확인,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등을 당부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